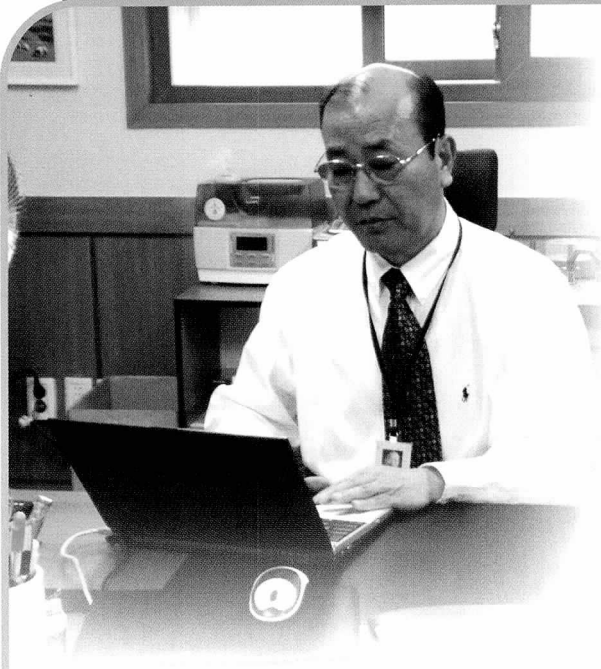




“선진기술과 고객을 향한
발걸음으로 한국 축산의
소중한 동반자 될 터”

>>> [취재 _ 현시영]

▲ 구본현 대표이사



▲ (주)신한바이오캠의 학술부장, 구본현 대표.

한국축산의 소중한 동반자 (주)신한바이오캠

(주)신한바이오캠은 1986년 10월 신한축산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20년이 넘게 한길을 달려왔다.

가축용 사료첨가제, 면역증강제 등과 같은 단미·보조사료 제품을 제조·수입하고, 동물약품도 포함해 최신의 농장자동화기계를 판매하고 있다.

구본현 대표는 자리에 앉자마자 사료용 인산칼슘인 MCP(인산1칼슘)를 80년대 중반 최초로 수입물꼬를 텃을 당시의 얘기부터 시작했다.

“사료용 인산칼슘은 가축, 양어사료에 인과 칼슘을 공급해요. 제조공정에 따라 세가지 인산칼슘 즉, MCP(인산1칼슘), DCP(인산2칼슘), TCP(인산3칼슘)로 나뉘어지죠. MCP와 DCP는 습식공정으로 생산되고, TCP는 건식공정으로 생산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TCP밖에 생산을 못했어요. 양어용 사료를 만들 때 MCP가 흡수율이 가장 좋아요.

DCP나 TCP는 동물의 체내에 5~10%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모두 물속으로 배설되요. 그렇게 되면 물속은 질소로 항상 오염되고 녹·적조현상의 원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시 관세청에서는 수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이것을 계속 쓰게된다면 문제가 생길게 분명했기 때문에 관세청을 오가며 건의했고 결국 80년대 중반에 국내에 처음으로 MCP를 수입해 사료업계에서 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TCP를 썼다면 수질오염과 사료효율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또한 80년대부터 항생제 대체제 기능이 있는 유카를 수입한 구본현 대표는 “유카추출물을 사료에 첨가하게되면 닭에서는 복수증을 예방하고, 사료효율 증가, 악취제거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라고 전하며 이 또한 당시 수입허가를 위해 당시 관세청에 분석방법을 가져다 주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달변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학구적인 설명. 알고 보니 구본현 대표는 신한바이오캠의 학술부장이라는 또 다른 직함이 있었다. 구 대표는 직원들의 교육까지 모두 도맡아서 하고 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 항상 special 하고 독특한 것을 개척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이고, 스스로 신한이 한국축산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항상 앞선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 GMP인가, 2년연속 품질관리 우수업체 선정

(주)신한은 1998년 동물용의약품제조업 허가를 획득한 후 2005년 동물용의약품 품질우수관리업

채(KVGMP)지정, 2005년과 2006년에는 2년연속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품질관리최우수업체로 선정 되는 등 우수업체로 이름을 떨쳤다. 국내에서 (주)신한바이오켄 제품의 우수성은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평이 나 있다.

제품에 쓰이는 원료도 제일 좋은 것을 수입해 와서 신한of formulation으로 취합해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회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것도 타 회사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업계의 더 나은 도약을 위한 직원간의 단합 또한 중요시하고 있다.

(주)신한은 전 직원이 2년마다 흡수년도에는 대청봉정상까지 오르는 것이 전통이다. 걸어서 못 갈 정도의 체력이면 그만되라 라고 생각한다는 구 대표.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명도 중간에서 그만둔적은 없다고 한다. 또한 오래 전부터 전 직원이 백두산에 올라 만세삼창과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 큰 엄원이었는데 올해 7월, 드디어 그 꿈을 이루었다고 전하며 뿌듯해 했다. “직원간의 소중한 단합과 신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한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어요.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플래카드까지 만들어 갔는데 사진한장 찍는데도 참 힘들었어요. 결국



▲ (주)신한바이오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든든한 기둥.



▲ 백두산에 오른 전 직원들.

애국가를 부르지 못했지만..”이라고 전하며 아쉬운 맘을 드러냈다.

제품관련 Episode

구본현 대표는 신한of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애피소드가 굉장히 많다고 전하며 그 중에서도 진프로(Zinpro)와 다이아몬드 이스트컬처(Yeast culture)를 꼽았다.

Zinpro는 Zinpro Corp.의 첫 제품으로 유방염예방, 체세포수 감소, 발굽질환예방, 번식장애를 예방하는 효과라 있는 제품으로 출시당시 선풍적 인기를 끌어 회사 이름도 제품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구본현 대표는 진프로가 아연제품이라고 전하며 이온으로 분해되고, 체내에 흡수되는 과정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이 제품은 80년대 후반에 당시 우유에 체세포수가 부각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을 때 히트를 쳤던 제품이에요. 당시에 참 고마운 분이 있는데 여주 농촌지도소에 계시던 오광원 지도사입니다. 지금은 퇴임하셨겠지만, 당시 그 분은 사명의식이 대단했던 분이였어요.” 구 대표는 오광원씨의 이름을 가능하면 넣어달라는 부탁을 전했다. 당시에 여주관내의 낙농가들이 체세포수로 인해 유업체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자 민원이 많았다

